쏘련, 하바로프스크 紀行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教授 任 慶 彬

1979年 8月 18日부터 9月 2日까지 쏘련 하바로프스크(Khabarovsk)시에서 開催된 平洋科學會議에 참가하였는데 여러가지面에 서 體制와 哲學이 우리의 것과는 달라서 다른 印象을 받았다.

8月 17日

東京타워부근에 있는 쏘련大使館과 領事舘 그 으로 갔다. 아침이 빨랐는데 正門앞에 다다르 길이 2m나되는 막대기를 든 正裝의 日本 察官이 서있다. 이쪽모퉁이에도 또 저쪽모퉁 에도 서있었다. 禁嚴한건 아니나 진지한 保 라는 느낌이다.

大使舘의 주구노와女史는 나의 論文要約을 읽 나더니 이번會議에 參席해야겠다면서 쏘련科 院招請의 비자를 發給해 주었다. 비자가 刊 되는 동안 室外로 나갈것없이 室內冷房이 잘 어 있으니 소파에서 便히 쉬고 있으라하는 親切을 베풀었다.

8月 18日

JAL로 하바로프스크로 떠났다. 시베리아의 습지대가 눈아래 보인다. 아마 落葉松의 原始 林인가보다. 針葉樹의 草野가 보인다. 來年 모 스크바올림픽 自動車速度競技場의 코오스는 시 베리아落葉松의 木材로 깔았다고 한다. 自轉車 타이어와 落葉松의 板材는 親和性이 있어서 速 度를 내는데에는 그만이라고 한다.

하바로프스크의 空港에 到着했을때 暴雨가 내 리고 있었다. 어두움속에 사시나무의 높은 行 列이 空港周邊에 보이고 있었다. 英語잘하는 案內孃이 우리들이 비를 몰고 왔다고 弄을 걸어 온다. 호텔 인투어리시트 706號室에 들었다.

8月 19日

뜨거운 샤워를 했기에 잠을 잘자고 일찌기 깨었다. 목욕탕에 備置된 비누는 흡사 우리나라의 빨래비누같았지만 거품이 잘일고 눈이 따겁고 하지는 않았다. 등록처에 가서 60달라 내고 논문집을 받았다. 우리가 등록하는 곳에 『South Korea』라고 명패가 붙어 있기에 나는 職員에 이야기해서 『Republic of Korea』로 시정시켜서 명패를 갈았다. 논문집에 나의 논문도 게재되고 있어서 마음이 흡족했다. 쏘련에서 刊行되는 책자에 나의 이름과 논문이 실렸기에 그러했다.

8月 20日

호텔부근의 레닌스타듐(大型室內競技場)에 가서 開會式에 참석했다. 2,000명은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이고 天井에는 照明장치가 대단했다. 이번會議의 大標語는 『人類의 福祉를 위해서 太平洋地帶의 自然資源을 잘 保存하고 合理的으로 利用』 하자는 것이였다. 시도랜코博士가 開會辭를 했는데 역시 自然資源에 대한 과학적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개회식이 끝나고 쏘련방내의 소수민족들의 춤과 노래가 있었는데 모두 각민족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흥미를 돋구었다. 일반적 공통성은 춤에 있어서 활기가 있고 동작이 빠르고 집단적이고 경쾌한 것이였다. 노래의 가사에 대하여서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소코로프교수의 부인이 끝까지 설명해주어서 감사하였다. 나무에 관계되는 『라반의 나무』의 가사는 흥미 있었다. 한兵士가 싸움터로 나가는 도중 라반이란 곳에서 하루밤의 휴식을 취하였는데 그 나무에게 자기의 武運이 長久할것을 빌고 살

아서 돌아올때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그 兵士는 싸움터에서 숨을 잃게되었는데 이때를 맞추어 그나무도 말라 죽어 운명을 함께 했다는 것이었다. 러시아的인 情緖가 있다.

8月 21日

산업박물관이 가까운곳에 있어서 그곳에 가보았다. 가시오갈피나무로 强精制를 고안해서 商品으로내고있는 브래크만교수가 나와서 설명해주었다. TV社의 사진기자들이 나를 집중적으로 촬영해 대고 있었다. 아마 인연이 좀 이상한 나라에서 왔기때문에 카메라의 촛점을 나에게 계속 맞추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브래크만교수는 50 cc의 赤褐液으로된 오갈피애키스(Extractum Eleutherococci)를 몇병인가 나에게 주었고 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오갈피나무의 뿌리를 종이에 싸서 나에게 주면서 몇가지 일을 협조해서 연구하자고 제안하기에 나는 同意했다.

시베리아北쪽에서 캐낸 맘모스의 새끼의 진열이 있었는데 高温時代의 시베리아에는 맘모스, 공룡등 熱帶動物이 우글거리고 巨大한 胞子植物이 天地를 덮어 石油와 石炭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8月 22日

이都市의 교외에 자리잡고 있는 林業試驗場의 樹木園을 보았다. 유명한 수목원이다. 하늘로 솟아오른 사시나무의 줄기의 밋밋함에 우선 경탄하고 유럽소나무의 줄기의 붉은 색갈에 눈길이 갔었고 日帝時 함경도 高山地帶에서 보았던 종비나무의 巨木群때문에 나의 情念은 일시 蓋馬高原을 달리고 있었다. 北方性의 나무인 찰피나무가 왕성한 자람을 보여주고 있었다. 베라女史는 영어가 능통해서 항상 나의 옆을 떠나지 않으면서 나무설명을 해주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단풍나무의 一種인 산 겨룹나무라든가 신갈나무, 잣나무, 오미자, 황벽나무, 가문비나무 등등 때문에 쏘련과 우리나라의 植物學的 連結性의 密接을 實感했다.

저녁에 호텔로 교포한분이 찾아와서 환담하면서 그곳의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교포들이 살고 있는데 모두 사이 좋게 지내고 있으며 결혼식때에는 모여서 축하해주고 축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혼식이 몇시간동안이나 길게 걸린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고 결혼년령은 남자 25세 여자 22세로서 우리의 사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이혼율이 대단히 높다고 했고 간통은 죄로서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

8月 23日

시내를 돌아 보았다. 호텔과 근거리에 있는 공산청년동맹광장(Consomor square)의 중앙에 戰士의 위령탑이 솟아 있다. 약 55년전 일본이 군인을 시베리아에 보내 싸움을 한적이 있는데 그당시 죽은 병사에 대한 위령탑이라고 한다. 탑의 基台에 生花가 많이 놓여져 있다. 결혼식때 신부가 들고 있던 꽃다발을 이곳에 놓고 신랑 신부가 참배하기도 하고 뜻있는 시민이 꽃다발을 갖다 놓을 수도 있다한다.

이도시의 중앙을 남북으로 "칼막스의 거리"가 관통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서울의 종로에 해당한다. 차도와 보도사이에 사시나무가 심어지고 그아래는 화단이 있고 보도는 매우 넓은 편이다. 자동차의 통행량이 극히 적고 우리나라 시골도시의 어떤 부분이 연상된다. 인구 60만의 도시인데 숲에 쌓여 있어서 자연의 要素가 풍부하다.

칼막스의 거리와 평행해서 남북으로 동쪽에 「아무트의 거리」 서쪽에 「우스리의 거리」 가 있었는데 이것은 公園街路로서 街路의 幅이 150 m를 넘고 공원사이를 지나가는 길도 되어있다. 땅이 워낙 넓어서 또 땅을 個人이 소유할 수 없는 體制이기 때문에 마음놓고 넓게 잡고 있다. 「칼막스의 거리」의 北端은 레닌廣場으로 되어있고 共産人民大會(?)가 이곳에서 開催된다고 한다. 이廣場의 주변에는 느릅나무가 列植되어 있고 화단과 분수 그리고 彫刻이 있다. 이 都市는 약 150年前부터 建設되기 시작했고 그때는 통나무의 木造建物이 많았으나 30～40年전부터 벽돌건물이 불어나고 있다.

모든 家産은 國家所有이고 個人의 財産으로 될수는 없다.

午前中에는 이곳 林業試驗場에 나가서 林業 部會議에 등록하고 分野開會式에 참석했다.쏘련 科學院의 院士인 멜레호프(melekhov)博士의 발表가 있었는데 森林의 生活環境으로서의 價値, 公益的効用 그리고 에너지 資源으로서의 평가 및 주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太平洋周邊의 林業와 경제의 주요성을 言及했다.

그리고 이어서 論文이 발표되었는데 나의 座席은 맨앞자리에 지정되고 책상을 주었으며 책상 위에는 음료수와 컵이 놓여 있었고 통역사가 옆으로 붙게 되었다. 우라디보스톡에 살고 있는데 이름은 제니(Jenny)인데 영어교사라하며 통역을 유창하게 했고 매우 상냥한 사람이다.

8月 24日

아침날씨가 맑다. 바다같은 아무르江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아침식사는 호텔의 식당에서 하는데 1.47루블(700～800원정도)을 내면 무엇이든 자기 량대로 갖다 먹을 수 있다. 소고기 찜, 돼지고기 편육, 생선요리, 감자, 완두콩, 당근, 도마토, 찐계란, 각종쥬스, 요쿠르트, 커피, 빵, 치이즈, 버터, 쌀밥 등 각종이 진열되어 있다. Continental breakfast이다.

오늘도 論文발표가 계속되었다. 이곳 쏘련사람들은 나를 呼稱할때 반드시 Dear prof.Yim 으로 부르고 있다. Dear가 하나 더 붙고 있다.

쏘련에서는 나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100년생이 되어야 나무를 끊어서 利用하고 있는 傾向이다.

낙엽송이 대단히 주요한 수종이고 가문비나무數와 전나무數를 Dark conifers라 부르고 경제적으로 주요한 位置에 있다. 들메나무, 박달나무類 피나무類도 주요하다. 황벽나무는 코르크生産으로 重要視하고 있다.

저녁에는 이곳 勞動中央委員會文化宮殿에서 開催된 『Amur江邊에 살고 있는 少數民族의 아마츄어 콘서트 program』에 참석해서 감상했다. 太平洋科學會議를 즈음해서 마련된 것이 ... 화사하고 ... 춤들이다. Flourish Amur(아무르江 ...), Dear Roses ... 도끼의 다름박질), nanai waltz(나나야의 왈츠), Nine daughters of Amur(아무르의 딸아홉형제) my land(나의 祖國), Friend of other's wives(?) 등이 프로그람에 나타나 있었다.

8月 25日

방문스케줄에 철도병원견학이 있었다. 쏘련에서는 의사라하면 80%가량은 女醫師라고 한다. 손재주가 있고 섬세하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에는 여자가 더 적격이라고 한다. 病院은 豫防醫學的인 任務가 濃厚한것 같았다. 女子醫師의 停年은 55세, 男子醫師의 停年은 60세이고 렌트겐취급의사는 女子는 45세가 정년, 남자는 50세가 停年이라고 한다.

午後에는 시내에 있는 「파이오니어 宮殿」(pioneer palace)에 갔었다. 이곳은 국민학교 중학교 정도의 학생들을 모아서 여러가지 教育을 課外로 시키는 곳인데 思想教育에 重点을 두고 있는듯 하다.

8月 26日

原始林踏査旅行을 한 날이다. 날씨가 맑다.

8月 27日

오늘은 내가 論文을 發表했다. 1時間 30分을 所要해서 發表와 質疑를 끝냈다. 우리나라의 林學과 林業에 대해서 關心이 매우 컸다. 나의 논문이 발표되는 동안 TV카메라가 계속 나를 촬영하고 있었다.

多數의 쏘련學者가 그들의 權威있는 著書를 기증해 주었다.